

경주 155호 고분서 신라달걀 발견

지난 18일 경주시 황남동 155호 고분 유물 함에서 토기에 담긴 달걀 20여개가 출토됨으로써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문화재 관리국 발굴 조사단장 김정기(金正基)씨는 고분에서 달걀껍질이 부패되지 않고 출토된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것은 닭이 신라 시대부터 가축으로 사육되었음을 입증해 줄뿐 아니라 고대사 및 고대민속연구에 학술적 사료가치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말하고 있다. 이 신라달걀의 출토로 우리나라 양계업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어 양계업계 뿐만 아니라 축산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달걀은 뚜껑있는 토기 2개속에 10여개씩 채워져 있었으며 거의 깨어진 조각 이었고 그중 1개는 완형(完形)이었다. 크기는 요즘 것 보다 조금 작은 길이 4cm, 높이 3.2cm였다. 빛깔은 재래토종 달걀처럼 붉은 색을 띠고 있었다. 내용물은 완전 부패되어 껍질만 남았고 빛깔은 다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보포법「保包法」 사용 가능성

신라 155호고분에서 달걀이 출토된대 대해 축산 시험장 연구관 정선부(鄭船富)박사는 우리나라 닭은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국에서는 기원전 1천 4백년쯤 부터 축산으로 보편화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보다 1백년후쯤 전래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양계는 김알지왕 때 계림정을 지어 유물을 남긴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양계가 일반 축산으로 보편화 된 것으로 보이며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알에서 났다는 신화가 있는 것

으로 보아 당시 신라인들이 닭을 숭상 신앙적인 면에서 묘안에 달걀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달걀보포법에 대해 정박사는 현대과학을 이용하는 가스저장법, 불유리보포법(액체) 등이 있으나 당시의 방법으로 난각면 보포법(卵殼面 保包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달걀 출토(出土)의 신비(神秘)

1천 5백년전의 계란이 155호 고분에서 발굴되었다는 신비로운 뉴스는 많은 호기심과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첫째 어떻게 1천 5백년이란 세월을 원형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가의 의문점이요 둘째는 왜 무덤속에 계란을 묻었을까 하는 의문이 접약된다. 첫째 의문은 화학적인 분석과 방사능의 투사로 풀릴 것으로 보이나 관계학자들은 달걀 껍질성분의 95.1%를 차지하고 있는 회분(灰分)이 적당한 지온의 조화에 의해 보존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계란의 다른 요소인 수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모두 분해돼 버리고 없고 회분만이 이 긴 시간동안 잔존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라고 본 것이다. 둘째 의문은 여러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고대인은 사람이 죽었을때 곧 종말을 뜻하지 않고 다른 세상으로 부활한 것으로 알았기에 이승에서 쓰던 모든 물건을 부장(副葬)하는 습속이 있었다. 각종곡식, 부식, 약 그리고 종이나 시너 각종가래 도구, 식기, 돈까지 부장했었다. 그 같은 일련의 부장품 가운데 하나로써 계란을 묻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고분발굴에서 각종 곡물, 과일등은 출토된 일이 있어도 달걀이 출토된 것은 처음이기에 일련의 부장품으로만

단정해 버리기에는 석연치 않다. 보다 주술적(呪術的)이거나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달갈은 생명을 난다는 신비력 때문에 고대의 동서 각 종족간에 생명력의 표현이요, 곧 영혼의 용기(容器)로 이해했던데 예외가 없다. 우리 선조들은 닭을 신성시 하는 민족은 동서 고금에 더 없었다. 어느나라건 자기네 종족의 시조(始祖)가 낳은 알에서 태어났다는 난생신화(卵生神話)를 갖고 있으나 한국민족을 형성한 고구려나 신라의 시조가 모두 달갈에서 태어났다는 신화로 미루어 달갈에 향하는 고대 한국인의 신성사상은 막중한 것이었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어머니 유화(柳花)는 닭이었다. 유화의 석 자되는 부치를 세번 잘렀더니 비로서 탈을하게 되고 이 여자가 태양의 빛에 수태를 하여 왼쪽 겨드랑에 닳되들이 만한 알을 낳았으며 이 알에서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태어났다. 신라시조 박혁거제도 알에서 태어났으며 박혁거세의 비(妃) 알영부인도 계룡(鷄龍)의 왼쪽 어깨죽지에서 태어났으며 마차 입의 닭부리처럼 생겼었다 했다. 신라 왕족인 석씨(昔氏)의 시조 석탈해(昔脫解)도 다바나국의 왕비가 낳은 알에서 태어났다.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金首露王)도

지붕에서 주운 금합속에 든 알에서 태어났다. 이와같이 한국의 시조들이 모두 알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고대 한국인은 닭이나 달갈을 극히 신성시 했던 것이다. 중국인 고대기록인 대당서 구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 보면 신라의 계기(鷄貴)의 나라라 하였다. 계기란 말은 산스크리트말인 쿠쿠다스파라를 의역한 것으로 쿠쿠다는 닭이고 스파라는 귀(貴)하다는 뜻이다. 당시 인도에서 신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신라사람은 닭을 신처럼 숭상하고 존경하며 머리를 닭깃으로 장식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으므로 이같이 쿠쿠다스바라고 신라를 불렀다 한다. 이신비스러운 달갈출토는 식품부장의 일종으로 풀이 하거나 사자의 부활을 비는 주술로 풀이 하거나 피장자가 신라시조의 후예인 왕이나 귀인이라는 상징적 해석이 가능한 것 같다. 이제까지의 이유중의 하나 또는 그 복합된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축산업계에서도 경주 155호 고분의 달갈출토로 보다 활발한 우리나라 양계의 발달사를 연구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

